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5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7월 24일 (음력 6월 12일) 화요일

## 나주시 “국내 최대 닭·오리 산지 사수하자”

### 3억1020만원 투입 축산농가 폭염대응 긴급지시

### 대형 웬·스프링클러·열 차단 페인트 등도 지원

광주·전남지역에 12일째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가축폐사가 잇따르자 나주시가 축산농가 긴급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 3억1020만원을 투입해 폭염 예방시설과 장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최대의 닭·오리 산지인 나주지역에서는 230농가에서 닭 873만200여마리, 오리 180만4200여마리 등 총 853만54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34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닭·오리 폐사 3만9245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축별로는 닭(11농가) 3만8000여 마리, 오리(4농가) 6000여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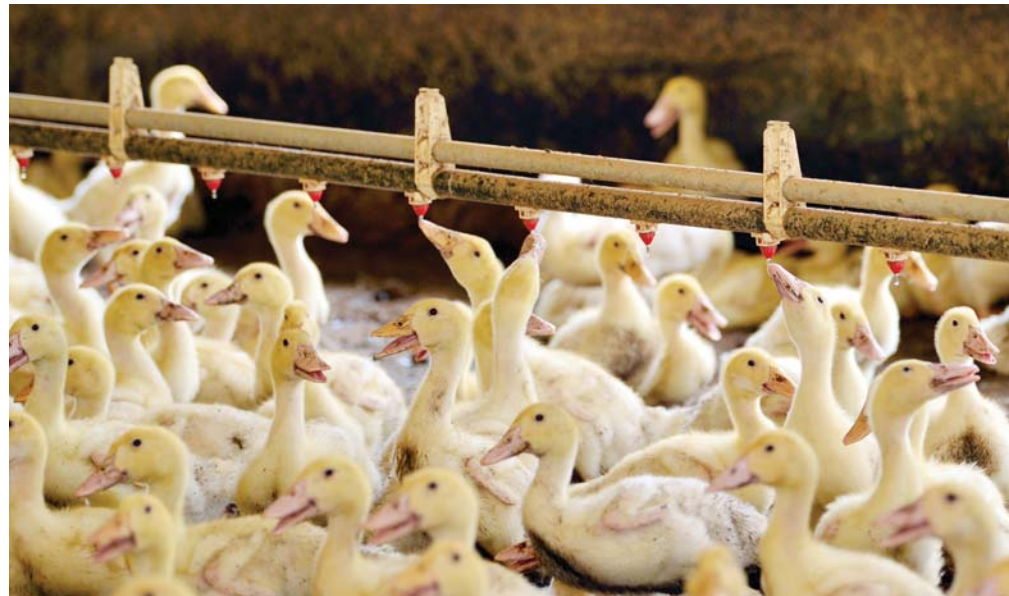
리, 돼지(19개 농가) 245마리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연일 가축폐사가 이어지자 강인규 나주시장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을 긴급 지시하고 예비비 3억1020만원 사용을 승인했다.

나주시는 폭염에 취약한 축산 농가를 선정해 오는 30일까지 축종, 사육규모, 축사여건에 적합한 시설·장비 설치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예정 장비는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인 대형 선풍기, 스프링클러, 열 차단 페인트 등이다.

강인규 시장은 “축산농가에서도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차광막 설치를 비롯해, 축사 지붕 물 뿌리기, 송풍기



전남 전 지역에 발효된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나주시 세지면 한 오리농가에서 무더위에 지친 오리들이 험하게 물을 마시고 있다.

를 활용한 축사 내부 공기 순환 등 가축 체온 관리에 민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 존재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정계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顔を 맡는 등 ‘폭력조직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이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오후 1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 지사와 조직폭력배 간 유착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 지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 60여 건 올라와 있다.

청원글들이 올라온 시점은 전날 SBS TV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의혹들을 제기하고 나서다.

서은홍 · 자료사진=뉴시스



## 보성 벌교농협, 봉사 활동 ‘칭찬자자’

###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독거노인 60여명에 열무김치 등 전달



보성 벌교농협(조합장 김기순)과 농가주부모임 벌교분회(회장 손공영)는 지난 20일 ‘사랑과 희망 나눔’ 봉사 활동을 전

개했다. 벌교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이날 직접 담근 열무김치와 물김치 등을 관내 독거노

인 60여명에게 제공해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날 봉사활동은 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이 그동안 미숫가루를 판매한 기금으로 회비를 모아 김치 재료 등을 구매해 이뤄졌다.

이들은 이번 희망나눔 봉사가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을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매달 요구르트나 청량음료 등을 준비해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방문무가 돼 주는가 하면 밀란찬 제공 행사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벌교농협은 이날 전문 식생활 프로그램 교육을 통한 행복나눔이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식생활·영양개선을 위한 ‘식생활 개선 행복나눔이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기순 조합장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을 챙기고 관심을 베푸는 것을 우리 농협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연구일 기자

## 광주·전남 ‘14일째 폭염’

### 온열질환 150명 · 가축폐사 22만마리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온이 35도를 넘는 폭염이 14일째 지속되면서 온열질환자와 가축폐사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광주와 전남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광주지역 온열 환자는 35명이며 이중 7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지역은 77명에서 115명으로 늘었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더위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축과 양식장 폐사도 잇따르고 있다.

나주와 영암 곡성 등 축산농가 174곳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22만4000마리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폐사했다. 피해액은 13억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일 기준 18만3000마리에서 20.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축폐사 피해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로 46농가에서 5만5000마리가 죽었으며 영암 17농가 3만9000마리, 곡성 10농가 2만5000마리 순이다. 또 함평의 한 가두리 양식장에서 돌돔 4만5000여마리가 폐사해 63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는 455농가 101만2000마리였으며 33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 제22회 무안 연꽃축제



- ### 주요행사
- 이-쿨존(얼음나라)
  - 연자방 소망등 달기
  -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 연빛달빛 사랑의 퍼레이드
  -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 발이공공 연꽃얼음물길



2018. 8.9(목) ~ 8.12(일) /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